

KOREAN
27 November 1995

multi
cultural
communication
HIV 예방에 책임감을 공유하자.
(Preventing HIV: Let's Share The Responsibility)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website: [www.http://mhcs.health.nsw.gov.au](http://mhcs.health.nsw.gov.au)

e-mail: mhcs@doh.health.nsw.gov.au

phone: (02) 9382 8111

NSW HEALTH
FOR A STATE OF BETTER HEALTH

“나는 아이들에게 HIV예방에 관해 말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봐요” 내친구중 한명이 이렇게 주장했다. “내아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고 마약을 하지도 않기때문에 AIDS의 위험은 없다고 봐요 ”

나의 친구도 AIDS를 유발시키는 HIV바이러스에 대해 무지한 전형적인 요즈음의 부모인 것 같다. 때로 부부들은 HIV를 논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기도 하며 자신들의 아이들이 전통적 가치관에의해 양육됐으므로 HIV에 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말하곤 하는데 HIV는 중요한 건강 이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이 부모의 책임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교육하는 것처럼 HIV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HIV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발견될 때까지는 예방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당신이 맞을지도 몰라요” 친구는 말한다. 그러나 콘돔사용이 HIV를 예방하는 길이란 것을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민망해요. 만약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섹스를 권장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부모가 충고함에 있어 센스를 발휘한다면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더욱이 아이들은 TV를 통해 온갖 종류의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모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배우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닐까?

세계 보건기구가 12월 1일 갖는 AIDS의 날의 주제는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자”이다. 이것은 HIV의 정보를 알권리와 함께 AIDS의 확산을 막을 공동체적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이다.

HIV는 인종과 종교를 막론하고 전세계 남녀에게 발병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하겠다. 누군가 HIV에 감염했다면 바이러스는 그의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물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런 경로로 감염자에서 비감염자로 전달되기 때문에 동일한 섹스 파트너가 아닌 이상 상관계시 콘돔을 사용토록 하자.

HIV는 키스나 포옹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음식이나 물, 모기, 곤충도 상관없으며 호주에서는 85년이후 수혈에 의한 감염자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문화 HIV/AIDS 교육 지원 서비스 (02)515 3098 나 Albion Centre (02)332 4000로 문의